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opia.com/mem/ha nmaum

# 상대방 잘못에서 자기모습 보세요

### 싸움에 휘말려 생활 힘들어요

문 미국의 뉴욕으로 떠난 이후 북한 학업과 생활고 속에서 끝없는 방황을 하던 중 한미음선원의 뉴욕 지부에 인연이 닿게 되었고 스님들의 가르침으로 주인공을 관하는 법을 배웠고 힘든 수확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토록 어려운 IMF 시절임에도 3년간의 무지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의 한 작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기쁨과 영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중생인자 저 자신의 사랑을 버리기가 너무도 힘든군요. 이곳의 선배교수들은 학생을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위한 싸움질만

칭찬하기가 바깥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뽀얗게 살이 찌고 건강해졌죠. 그러자 며느리는 이쯤에서 시어머니를 내다 팔 생각을 하는데 마침 나라에서 효부표창을 하겠다는 거지 뭐니까? 시어머니 모시는데 모범이 됐대나. 그러니 내다 팔 엄두도 못내고 시어머니를 더욱 잘모시며 살았다는 얘깁니다.

남이 잘못하는 걸 아단치고 꾸짖는다고 해서 바로 잡히는 건 아니지요. 집에 아이들도 따듯한 말로 인의롭게 동글게 대해줄때 달라지지 그냥 욱박지른다거나 몸통으로 강제 한다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이 나를 보면 나 또한 어리



그림·최주현

### 잘못을 욱박지르고 꾸짖지 말고

### 따뜻하고 인의롭게 대해줘야

### 마음 움직여 달라지게 됩니다

을 해내니 피해보는 사람은 학생들 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자꾸만 주인공을 잊고 격분하면서 남을 대하다보니 점점 배척을 당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만 가는군요. 지금 제 상황을 제가 보아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저의 앞날에 대한 걱정거리만 가지고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과거의 어느시절 보다는 힘이 드는군요. 자기의 마음을 보내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문 예전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도 않고 구박이 심한 게 도무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더라. 그래 아들이 고민고민 끝에 한 죄를 지었습니다.

문 "여보, 시집에 나갔다가 보니까 살아도 원앙계 쥘 노인네를. 나라에서 아주 큰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대강 얘기합니다만 그랬더니 며느리가 슬깃해서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게 없었는데... 그러던 아부지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뒤 우리 며느리가 재일이라며 인공으로

석은 데가 한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보면 전자에 내가 몰랐던 때의 내 모습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걸 먼저 내 탓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고요.

문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자의 내 모습같이 보아 모나지 않게 상대하면서 한 생각 바르게 주인공자리에 놓고 간다면 상대로 통신이 되어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분명합니다.

### 마음은 어떻게 개발하는지요

문 따뜻한 불남입니다. 항상 불남로 살고 계시는 큰스님 사랑합니다. 한마음 요전을 보다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문 스스로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마음의 진화방법 수행의 지침이 되도록 알려주세요.

문 한마음 요전을 보다가 의문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걸 내게 물어서 답을 듣기보다 스스로 물어서 답을 들도록 해주세요. 내 속에서 나온 의정이나 알게 하는 것도 노력에 없다 하고 다시 놓고 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다보면 일토당토한

## 주인공에 놓고 물고 들어가면 썩이 나와 조바심을 내면 잘 돌아갈 일도 막힙니다

의문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나온 자리에 되놓고 '주인공. 너만이...' 하면서 물고 들어가면 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게 바로 수행이며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길입니다. 아무런 의문도 생기지 않는데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공부재료이니 맞습니다.

### 사이버 마켓 운영 잘 몰라요

문 저는 얼마 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상점(사이버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이 상점은 주로 약용작물(상항버섯, 동충하초, 홍화씨, 누에가루 등)을 팔고 있으며, 처음 개설하게 된 목적도 한국의 전자상거래를 한번 주도해 나아가고 싶고 또한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마음가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운영이 될지 몰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문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름답군요. 그런데 본인 자신도 그렇고 아픈사람도 그렇고 약이 정부가 아니라서 잘 아셔야 합니다. 약을 무시하거나 병원치료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의존하고 매어달리기에 앞서 자신의 근본능력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갖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만 전부로 알지 말고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약을 써도, 의사의 손을 빌려도 그게 제대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팔더라도 파는 사람부

터가 돌 아니게 한마음 기울어서 먹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게끔 한생각 내준다면 같은 약이라도 결과는 다를 겁니다. 이왕이면 마음공부에 대해 알려주면서 약을 팔아도 파신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 모비 세우는 문제로 속상해요

문 인터넷을 통해 큰스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 어찌 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선 용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오라 저희는 사남매 막내로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시숙님 뜻만 따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돈 걸어서 시부모님 산소앞에 비석을 세우기로 했는데 막내 며느리인 저의 마음은 엔지 편지가

않아요. 영망으로 되어 있는 시조부님 산소를 생각하면 그리고 찾지 못하는 조상님 산소를 생각하면 이번일(비석 세우는 일)이 먼지가 아닌듯 싶습니다. 큰스님께 서는 돌로 보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집안이 종교가 각각이다보니 뜻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늘 저 혼자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 남편조차 이 공부를 안하는 사람이다 보니 수년간 발 구르며 혼자 선원을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만 앞서고 있습니다. 가족 아니 집안 모두 한마음으로 이끌지 못한 제 자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큰스님! 이럴때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가르침 주십시오.

문 생각 나는것마다 그렇게 일일이 붙들고 늘어진다던데 언제 이 도리를 공부하시렵니까. 한 생각 일어났으면 그게 사대로 벌써 통신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된다고 조바심을 내고 그러면 잘 돌아갈 일도 막히게 됩니다.

문 한생각 일으켰으면 주인공을 믿고 턱 놓고 관하세요. 그래야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행동도 지혜롭게 나갑니다. 그걸 마음으로 융쳐 매어놓고 어휴! 저걸, 저렇게 어리석음 수가있나?하고 짜증을 낸다면 될 일도 안되지요. 무조건 믿고 놓고 맡기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막 고정을 지어버리니 상대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 공부도 영 더러지게 됩니다.

### 가족 축원도 집착 아닌지요

문 어머니와 지만 선원에 다닙니다. 가족들 생각이 나서 보름이나 초하루 때 가끔 축원을 올리기도 하는데, 가끔 그런 일들이 가족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세요.

문 내 마음이 그러한데 어찌 어머니와 나만 다닌다고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만 몰라서 그럴뿐이지 내 한생각 일으키는 활나에 공체로서 공용하고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맞을까 저게 옳을까 하실 것 없이 항상 돌이 아닌 마음으로 지극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전선과 전선이 이어져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허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칭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213)

## 현실의 고(苦)는 나를 정화시키는 보살의 손길

인생은 '고'가 아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멸명의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윤회가 있다고 하나 만나고 헤어짐의 근본이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니다.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의 가족, 벗, 이웃들이 덜어 주고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자기 집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곧 고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직접 성취해 보여 주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여 보여 주신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실 고가 아니다. 다만 고라고 느끼며 속박되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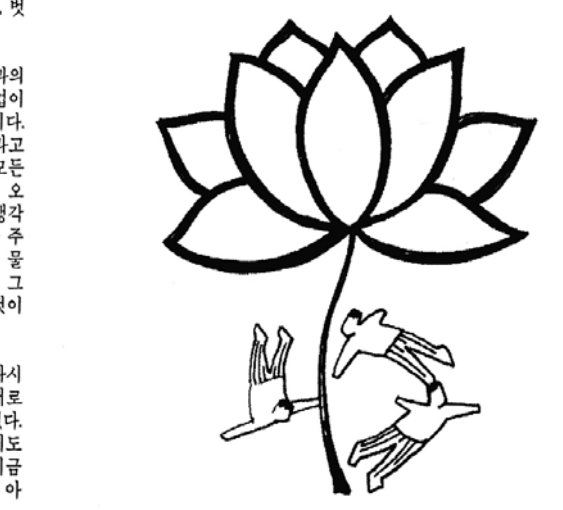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은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참된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 가지 고에서 벗어나도 해도 또 다른 고가 닥쳐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열 세 없이 고락을 만들어 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생산해 낸 것은 내가 수습해 들여야 한

다. 고의 경계들이 다가오는 원인을 모른다면 단방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안다면 수레의 업으로부터 단숨에 벗어날 수도 있다. 평생을 고에 시달리거나 벗어나느냐는 한생각의 차이를 판가름한다.

내가 인연 따라 태어난 것부터가 인과의 산물이니 그대로 고이다. 이전에 살던 업이 쌓이고 동적 오늘의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업이라고 괴로워한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그 모든 것을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돌린다면 오직 참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 돌리는 것은 모처럼 나온 새벽에 물을 주는 격이고, 그냥 업보라 해서 괴로워함은 물을 주지 않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격이다. 그래서 모르면 지옥고이고 알면 극락인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의 과보로 다시 나오기에 살다 보니까 고초가 따르고 서로 쫓기고 쫓는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발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산 교훈이요 산 진리이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지금 내게 닥치는 고의 경계들은 사실 인연이 내가 벌레로 살다가, 새로 살다가, 짐승으로 살다가, 혹은 인간으로 살면서 지었



던 모든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고의 경계가 다가왔다 해서 이를 피하려거나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일깨워 수행하게 하고 다지는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마음이라면 고는 이미 고가 아니라, 결코 놓고 돌아가는 데 고집병도는 어디 있었는가.

현실의 고통이란 알고 보면 순간 순간 자기를 밖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밀거름이다. 본래로 밝아 있음을 모르는 나를 일깨워 성숙시키고 종내는 해탈로 이끌어 주는 수련의 과정인 셈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사생계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우리의 삶이 고라고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과정이니 고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삶을 고라 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실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흙탕 물에 빠져 본 사람은 자기가 해 보았으니까 다시 빠지지 않고 남도 건질 수 있지만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때를 알 수도 없거니와 남을 건져 주지도 못한다. 고 속에서 굴러 본 사람이라야 굴러 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감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라는 것도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 닥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는 인간으로 형성시킨 게 고마운 것이요, 둘째는 그렇게 분별해서 모든 것을 알게 만

들어 주니 고마운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힘도 오는 것이지 자기가 나지 않는다면 무슨 부딪힘이 있었으며 무슨 상대가 있었는가. 그러기에 고다. 업보다 자기 이전에 참 나다 일체 경계를 말 거 놓고 관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모든 것을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되게 동굴에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고 믿고 놓아라. 그때는 고에서 그냥 타파해 버렸기에 집도, 명도, 도도 없다. 고라는 것을 잘 요리해서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맛이 되고 감사할 일이다.

현실의 자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의 자기 꼴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니 현실의 고나 인과 등은 그대로 수련 과정인 셈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면 오히려 나쁜 풍기와 먼지 그리고 불결한 것들을 다 청소시켜 주니, 현실의 고는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 주는 부처요 보살이다.

협찬: 장규봉